

1번

(가)는 새로움에 대한 다수의 역할을 평가라고 본다. 왜냐하면, 평가가 선행되어야 다수는 새로움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가 보는 다수의 역할은 매개이다. (나)의 관점에서 다수는 소수인 걸작들을 개작하여 졸작들을 만들며, 새로운 걸작으로의 유도를 통해 매개한다. (다)는 다수가 새로움을 창조한다고 한다. 무수한 개인들로 형성된 다수는, 상호작용을 통한 발견의 대체와 축적을 통해 새로움을 창조한다.

세 제시문은 공통적으로 새로움을 긍정하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는 (가)가 새로움으로 인해 알이 깨져 성숙해진다고 하는 부분과, (나)의 걸작에 대한 예찬, (다)의 새로움을 통해 사회적 진보를 얻어낸다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제시문들의 차이점은 세가지 기준에서 드러난다. 다수의 발전방식, 새로움의 발생주체, 다수의 태도가 그것이다.

다수의 발전방식을 기준으로 하면, (가)와 (나),(다)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다수가 새로움을 받아들이면서 알을 깨가는 등의 단계적 발전방식을 취하는 반면, 후자는 모방을 통해 발전하는 차이가 있다. 또한 (나)는 모방을 통해 새로움을 추구하지만, (다)는 모방은 연대를 위한 수단이며, 연대로써 새로움을 추구하는 차이가 있다.

새로움의 발생주체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와 (가),(나)로 나뉜다. (다)는 다수가 새로움의 주체지만 (나),(가)는 소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가)는 소수의 완전성이 명확하지 않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도 있다.

다수의 태도를 기준으로 하면, (가)와 (나),(다)로 나뉜다. (가)의 다수는 새로움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나)(다)는 능동적으로 새로움의 창조에 참여하는 차이가 있다. 또한 (나)는 단지 걸작에 얽매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다)는 새로움을 형성하는 과정 전반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2번

(라)의 실험결과는 개인은 다른 사람들의 의향을 참고한 가운데, 스스로 상당히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1)은 판단을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시된 그림에서, 집단형 사이트의 곡1의 다운로드수는 비교적 정확한 개별형 사이트의 다운로드 수보다 최소 10회 이상 차이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운로드 수가 많은 곡일수록 점들 간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각 사이트마다의 성향이 달랐던 것으로 해석된다. 즉, 어느 곡에 먼저 긍정적 의견이 달렸는지가 이같은 간격 차이에 영향을 준 것이다. 또한 개별형 사이트와 집단형 사이트간의 다운로드 수가 상관관계적 분포를 보인다는 것은, 집단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스스로의 판단을 더 신뢰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2)를 보면 곡 간의 순위가 거의 정비례 한다. 이는 집단의 영향범위를 보여준다. 1~2등 내외의 작은 순위 차이와, 순위를 지키는 선에서의 표차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순위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또한 집단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서도 개인은 개인의 판단에 좀더 중점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의 관점에서 (가)의 주장은 신뢰도가 떨어져 보인다. 우선 (가)는 새로운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일률적인 것을 지양하고, 다양성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라)에 따르면, 개개인 스스로에 근거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며, 그 결과 일관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가)의 다양성 찬양은 역지다. 또한 (가)는 집단마다의 수준 차에 따라 반응의 차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라)에 따르면 무작위로 배치한 여섯 집단 간, 결과의 큰 편차는 없었으며, 다운로드 순위의 경우에는 오차범위 1 이내의 정확성을 보였다. 따라서 집단 간의 수준 차로 인해 다양한 반응과 일관적 반응이 갈린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